



특집—“문학 장르의 생동력”

김태환·이한정·조강석·백지은·소영현·선우은실

『쓰레-문학의 이름으로』 제13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140*240 / 516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문학 장르의 생동력” 특집으로 엮어

반연간 문학전문지 『쑈-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제13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의 주제는 “문학 장르의 생동력”이다. 신자유주의의 문화 침식과 그 상업주의적 전략에 의한 문화 소비가 만연한 최근의 현실 속에서, 혼돈과 변화의 징조가 문학 장르의 차원에서도 두드러지게 엿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시와 소설 장르 내부에서부터 해체·재구성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는 시적인 것과 비-시적인 것의 경계를 거침없이 허물고 소설은 르포나 다큐멘터리, 역사적·자전적 증언들과 뒤섞이며 뜻밖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으론 소위 장르 소설이 이때까지와는 다른 면모로 떠오르고, 에세이 류의 글쓰기 또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 장르와 창조성 | 김태환 (서울대 독문과 교수)
2. 일본 근대문학의 형성과 장르 문제_서구 문학의 수용과 변용 | 이한정 (상명대 일본어권지역학 교수)
3.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에서_고슴도치와 여우는 악수를 나눌 수 있을까? | 조강석 (연세대 국문과 교수)
4. 허구 이론 | 백지은 (문학평론가)
5. 장르 시대의 문학 풍경들_앤솔러지, 큐레이팅, #해시태그 키워드 | 소영현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6. 약자-되기로서의 개인적 정치성과 에세이라는 언어 형식 | 선우은실 (문학평론가)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장르 의식과 글쓰기 전략

1. 세에라자드의 우울 | 구병모
2. 아니, 무슨 소설을 쓰냐니?!_문학 장르에 관한 잡생각 몇 토막 | 서준환
3. 증조부의 월탄 삼국지 | 신동욱
4. 시와 단편소설, 그리고 장편소설을 함께 쓴다는 것 | 한강

제7회 문학실험실 포럼 : 1980년대 문학의 재조명

때로는 지금-여기에 관한, 때로는 그때-거기에 관한 문학적 논쟁점을 찾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온 <문학실험실 포럼>이 이번에는 1980년대 문학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치·사회적으로 군부독재에 대한 가열찬 투쟁의 시기였던 1980년대, 문학 또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문화적 행위로서의 문학이 그런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구호나 명분의 차원을 넘어서 매우 복잡적이며 섬세한 성찰을 요구한다. 따라서 당대의 문학 논쟁들과 실제로 산출된 작품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명백하지만, 우리는 일단 새로운 시각의 문제 제기 수준에서 네 개의 각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1. 1980년대 문학 논쟁의 쟁점과 결여_민족민중문학론 회고 | 김형중
2. '민중'과 '문학' 사이, 가장 뜨거웠던 글쓰기_노동자 시와 르포르타주 문학의 등장 | 김나현
3. 영원한 동시대성_‘소수 문학’으로서 전위-실험 문학이 갖는 위상 | 이소연
4. ‘무협’과 ‘에로’로 읽는 1980년대_대중문학의 프리즘 | 정종현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 이번 <시와 소설> 난은, 시인 이수명·장승리·유희경·안태운과 소설가 조해진·박화영·남현정의 신작 작품을 소개한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문학 읽기의 즐거움을 가져다줄 것이다. 특별히 문예지에 서는 매우 드물게 희곡을 싣고 있는 본지에서 이번 호에 이홍도 작가의 신작 희곡을 선보인다. 또한 <텍스트 실험 공간>에서는 진연주 소설가의 신작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그때 그 실험

문학실험실이 지향하는 문학관에 비추어 지난 시대의 작품들을 재조명하는 <그때 그 실험> 난에서는, 최현식 씨가 4·19 세대를 대표하는 정현종 시인의 첫 시집 『사물의 꿈』 (『고통의 축제』는 이 시집에 「고통의 축제」 한 편을 덧붙여 재간한 것이다)을 새롭게 읽어본다.

지금 이 언어

동시대 작품들의 문학적 가치를 채굴하려는 <지금 이 언어> 난에는, 최근 소설들에 대한 두 편의 글이 마련되었다. 한 편은 왕성한 활동 속에서도 늘 독특한 문제 제기와 이야기 구성력을 보여주는 김술 씨의 근작 장편소설 및 소설집 두 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한 편은 여성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추구하고 있는 중견 소설가 김선재 씨의 두 번째 장편소설과 신진 소설가 김효나 씨의 두 번째 소설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두 평론은 김영삼·김나영 씨가 맡아주셨다.

차례

특집 : 문학 장르의 생동력

1. 장르와 창조성 | 김태환
2. 일본 근대문학의 형성과 장르 문제_서구 문학의 수용과 변용 | 이한정
3.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에서_고슴도치와 여우는 악수를 나눌 수 있을까? | 조강석
4. 허구 이론 | 백지은
5. 장르 시대의 문학 풍경들_앤솔러지, 큐레이팅, #해시태그 키워드 | 소영현
6. 약자-되기로서의 개인적 정치성과 에세이라는 언어 형식 | 선우은실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장르 의식과 글쓰기 전략

1. 세에라자드의 우울 | 구병모
2. 아니, 무슨 소설을 쓰나니?!_문학 장르에 관한 잡생각 몇 토막 | 서준환
3. 증조부의 월탄 삼국지 | 신동욱
4. 시와 단편소설, 그리고 장편소설을 함께 쓴다는 것 | 한강

시와 소설

없는데 | 남현정
한없이 길고 환한 복도의 끝 | 박화영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타고 가는_흐름의 시간_부엉부엉 | 안태운
실종자 외_季_접속곡(接續曲) | 유희경
꿈에 네가 나왔다_유월_도시가스 | 이수명
변신 이후의 극장 | 이홍도
눈_물 위의 먼지_햇빛 | 장승리
한여름의 유통기한 | 조해진

텍스트 실험 공간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는 불상사 | 진연주

제7회 문학실험실 포럼 : 1980년대 문학의 재조명

1. 1980년대 문학 논쟁의 쟁점과 결여_민족민중문학론 회고 | 김형중
2. '민중'과 '문학' 사이, 가장 뜨거웠던 글쓰기_노동자 시와 르포르타주 문학의 등장 | 김나현
3. 영원한 동시대성_소수 문학'으로서 전위-실험 문학이 갖는 위상 | 이소연
4. '무협'과 '에로'로 읽는 1980년대_대중문학의 프리즘 | 정종현

제7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김현문학패 소개

선정의 말

수상소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 김언

처음을 생각한다 | 윤해서

수상 작가론

김언 함수函數론 미분과 적분의 시적 체계 | 박대현

자유의 실험 윤해서 소설의 생각을 찾아서 | 김대산

그때 그 실험

바람·길·삶 정현종의 『사물의 꿈』을 다시 읽다 | 최현식

지금 이 언어

차별과 혐오의 뒷골목, 유럽의 정치지리학_김솔의 『유럽식 독서법』과 『부다페스트 이야기』 | 김영삼
기억이 기억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글쓰기_김선재의 『노라와 모라』와 김효나의 『초와 그녀』 | 김나영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무조건적인 듣기의 시간 김숨 중편소설 『듣기 시간』 | 임정균
침묵의 목소리, 고요한 굉음 정나란 시집 『굉음』 | 최규승
현대적 저자 이론의 수립 가능성_김태환 『실재 저자와 가상 저자: 내재적 저자론에서 저자의 사회학까지』 | 정의진

이번 호 필자

구병모 | 소설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창작과비평』의 창비청소년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빨간구두당』 『단 하나의 문장』과 장편소설 『위저드 베이커리』 『한 스푼의 시간』 『네 이웃의 식탁』 『한 스푼의 시간』 『파과』 『아가미』를 펴냈다.

김나영 | 문학평론가. 1983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였고, 현재 『자음과모음』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나현 | 국문학자.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김대산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달팽이 사냥』을 펴냈다.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영삼 | 문학평론가. 1976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였고, 현재 전남대학교 등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김태환 | 문학평론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독문학과 및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대학에서 독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푸른 장미를 찾아서』와 문학 이론서 『문학의 질서』 『미로의 구조』 『실재 저자와 가상 저자』를 펴냈고 다수의 독일 문학서·철학서를 번역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형중 | 문학평론가.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소설과 정신분석』 『켄타우로스의 비평』 『변장한 유토피아』 『단 한 권의 책』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 『후르비네크의 허』와 산문집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를 펴냈다. 현재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남현정 | 소설가. 1983년에 광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공연예술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2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박대현 | 문학평론가. 197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헤르메스의 약동 닿을 수 없는 혁명 혁명과 죽음 우울한 것의 추락 황홀한 아파니스스를 펴냈다. 현재 『작가와사회』 편집 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박화영 | 소설가. 1977년 광주에서 태어나, 상명대학교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과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9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악몽 조각가』를 펴냈다.

백지은 | 문학평론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독자 시점』 『건너는 걸음』을 펴냈다.

서준환 | 소설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했다. 2001년 『문학과사회』로 등단하여, 소설집 『너는 달의 기억』 『파란 비닐인형 외계인』 『고독 역시 착각일 것이다』와 장편소설 『골드베르크 변주곡』 『로베스피에르의 죽음』, 연작 극(劇)텍스트 『죽음과 변용』을 펴냈다.

선우은실 | 문학평론가. 1991년 인천에서 태어나,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소영현 | 문학평론가. 1970년에 태어나,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분열하는 감각들』 『하위의 시간』 『프랑켄슈타인 프로젝트』 『울빠미의 숲』과, 문학·문화 연구서 『문학청년의 탄생』 『부랑 청년 전성시대』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동욱 | 시인. 1977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 『시와 반시』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악공, 아나키스트 기타』 『웃고 춤추고 여름하라』 『고래가 되는 꿈』 『밤이 계속될 거야』 『달나라의 장난 리부트』, 산문집 『서정적 게으름』, 시론집 『기억해 봐, 마지막으로 시인이었던 것이 언제였는지』를 펴냈다.

안태운 | 시인. 1986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다. 2014년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감은 눈이 내 얼굴을』 『산책하는 사람에게』를 펴냈다.

유희경 | 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했다.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오늘 아침 단어』 『당신의 자리. 나무로 자라는 방법』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과 산문집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반짝이는 밤의 낱말들』을 펴냈다. 현재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다.

이소연 | 문학평론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비평집 『응시하는 겹눈』을 펴냈다.

이수명 | 시인.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새로운 오독이 거리를 메웠다』 『왜가리는 왜가리놀이를 한다』 『붉은 담장의 커브』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 『언제나 너무 많은 비들』 『마치』 『물류창고』와 문학연구서 『김구용과 한국 현대시』, 시론집 『횡단』 『표면의 시학』, 평론집 『공습의 시대』를 펴냈다.

이한정 | 일본문학·문화학자. 1965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일본어권지역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홍도 | 극작가. 1992년 태어나, 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언론홍보학과를 졸업했다. 2017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젊은 비평가상'을 통해 연극평론가로, 202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극작가로 등단하여, <2032 엔젤스 인 아메리카>, <이홍도 자서전>, <없는 극장>(공동 작업), <미국연극/서울합창>, <미국연극> 등의 연극 작품을 쓰거나 연출했다.

임정균 | 문학평론가. 1985년 대구에서 태어나,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9년 『창비』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였고, 계명대학교 목요철학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장승리 | 시인.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습관성 겨울』 『무표정』 『반과거』를 펴냈다.

정의진 | 불문학자.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파리8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 프랑스 문학예술 이론, 프랑스 현대문학 및 문화를 연구하며 발터 벤야민, 자크 랑시에르 등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상명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대학 프랑스어 권지역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종현 | 국문학자. 1972년에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제국 대학의 조센징』 『대한민국 독서사』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 문학』 등을 펴냈다. 현재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강석 | 문학평론가. 196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아포리아의 별자리들』 『경험주의자의 시계』 『이미지 모티폴로지』 『틀린의 기동』와 문학 연구서 『비화해적 가상의 두 양태』 『한국문학과 보편주의』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해진 | 소설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4년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천사들의 도시』 『목요일에 만나요』 『빛의 호위』 『환한 숨』과 장편소설 『로기완을 만났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숲』 『여름을 지나가다』 『단순한 진심』을 펴냈다.

진연주 | 소설가.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장편소설 『코케인』과 연작소설집 『이 방에 어떤 생이 다녀갔다』를 펴냈다.

최규승 | 시인. 196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2000년 『서정시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무중력 스웨터』 『처럼처럼』 『끝』 『속』과 육필 시집 『시간 도둑』을 펴냈다.

최현식 | 문학평론가. 1968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말 속의 침묵』 『시를 넘어가는 시의 즐거움』 『시는 매일매일』 『감응의 시학』과 문학 연구서 『서정주 시의 근대와 반근대』 『한국 근대시의 풍경과 내면』 『신화의 저편—한국현대시와 내셔널리즘』 『최남선·근대시 가·네이션』을 펴냈다. 현재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강 | 소설가·시인.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시인으로,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소설가로 등단하여, 소설집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노랑무늬영원』과 장편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를 펴냈다.